

	독일 ( 프 랑 크 푸 르 트 ) 사 무 소 <b>해 외 동 향 보 고 서</b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5. 2.

### CEPA Insight

-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, 수소 인프라, AI, 디지털 전환 등 정부 투자가 집중되는 성장 수요를 중심으로 진출 기회 모색 필요

#### ① 정당 지지율 동향

- 2. 23.(일) 총선을 앞두고 1. 30.(목) 발표된 평균 정당 지지율 동향에 따르면 제1야당인 기민기사 연합(CDU·CSU)은 28-32%로 하락세 기록
- 우익정당인 독일 대안당(AfD)은 19-23%로 상승세, 집권 연정 여당인 사민당(SPD)과 녹색당(Grüne)은 각각 14-18%와 12-15%로 보합세
- 집권 연정에서 탈퇴한 자민당(FDP)과 좌파당(Linke)은 각각 3-5%의 보합세와 3-5% 약상승세로 여전히 원내 진출이 부정적인 상황
- 좌파당에서 분당한 신생 정당인 바겐크네히트 연맹(BSW)는 4-6%로 약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※ 출처 : DAWUM (<https://dawum.de/Bundestag/INSA/2025-02-01/>) 등

#### ② 유로존, 지난해 연 0.9% 성장

- 유럽연합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, 2024년 4분기 기준 유로존 20개국의 1년 전 대비 국내총생산(GDP) 규모는 0.9% 성장
  - 유로존의 분기별 연 성장률의 평균치는 0.7%((1분기 0.4%, 2분기 0.5%, 3분기 0.9%, 4분기 0.9%))
- 국가별로는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.2%를 기록했으며, 연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 0.2% 기록, 2년 연속 역성장
  - 아일랜드 연 2.5%, 스페인 3.5%, 프랑스 0.7%, 이탈리아 0.5% 성장

※ 출처 : Eurostat (<https://ec.europa.eu/eurostat/web/products-euro-indicator/s/w/2-30012025-ap>)

### ③ 2024년 독일 경제 역성장 주요 원인

-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관련, 브란트(Ruth Brand) 연방통계청장은 주요 판매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 증가, 높은 에너지 비용, 고금리 지속,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
- 독일 경제는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바
  - 최대 파트너인 중국의 글로벌 시장 성장동력 상실과 국내 기업의 파산건수 증가 등으로 업계의 수출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며
  - 에너지 가격 및 광범위한 관료주의가 독일의 산업입지를 악화 시킴
- 산업별로는 기계공학 및 자동차 산업 등 핵심 분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서 총 부가가치는 3% 감소했으며
  - 화학, 금속, 산업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생산량도 여전히 낮은 수준
  - 상승된 건축비용과 이자율로 인한 건설업의 부가가치도 3.8% 감소
  - 소비자 역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민간 소비자지출은 물가 조정 후 0.3% 증가하는 것에 그침.

※ 출처 : Handelsblatt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politik/konjunktur/bip-daten-deutsche-wirtschaft-schrumpft-erneut-minus-von-02-prozent/100100833.html>)

### ④ 독일 탄소 배출량 1990년 대비 약 절반 감축

- 아고라 에네르기벤데(Agora Energiewende) 보고서에 따르면, '24년 독일의 총 탄소 배출량은 '90년 대비 48% 감소한 6억 5,600만 톤으로 나타남
  - 보고서는 독일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달성했으나, 유럽연합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으며, 건축 및 교통 부문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
- 전체 탄소 배출량 감축의 80%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을 통해 달성
  - '24년 독일에서는 6.1GW 규모의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었고,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55%에 달함.

※ 출처 : FAZ (<https://www.faz.net/aktuell/wirtschaft/klima-nachhaltigkeit/deutsche-co2-emissionen-gegenueber-1990-fast-halbiert-110215398.html>)

## 5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현황 초기 통계 발표

- 2024년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 설치 용량은 약 20GW 증가하여 전체 설치 용량이 190GW를 기록 (전년 대비 12%↑)
  - 독일 전력의 약 60%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, 석탄 사용량 최저 수준
- (태양광) 태양광 설치 용량은 전년 대비 16.2GW 증가하였으며, 특히 바이에른주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설비(4.0GW)를 설치
- (육상풍력) 2024년에는 2.5GW의 육상풍력 설비가 신규 설치되어 총 설치 용량은 연말 기준 63.5GW에 도달
  - 2024년에 승인된 육상풍력 설비 용량은 약 15GW로, 전년 대비 90% ↑
- (해상풍력) 발트해 Baltic Eagle, 북해 Gode Wind 풍력단지에서 총 73개의 신규 풍력 설비가 가동되면서, 총 0.7GW 용량 추가
  - 현재 독일의 해상풍력 총 설치 용량은 9.2GW에 도달

※ 출처 : 연방경제기후보호부 (<https://www.bmwk.de/Redaktion/DE/Pressemitteilungen/2025/20250108-ausbau-erneuerbarer-energien-2024.html>)

## 6 폭스바겐 그룹,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 및 신설 검토

- 폭스바겐 그룹 산하 아우디와 포르쉐는 현재 미국 외 지역에서만 생산 중이나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비하여 미국 내 생산 검토 중
  -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생산라인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 추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것
-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(Moody's)는 유럽산 자동차에 10% 관세가 부과될 경우, 폭스바겐 그룹 영업이익은 약 10% 감소 될 것으로 전망
- BMW와 메르세데스-벤츠는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직접 생산 중이며
  - 현지 생산량과 미국 내 판매량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※ 출처 : Handelsblatt (<https://www.handelsblatt.com/unternehmen/industrie/volkswagen-audi-und-porsche-erwaegen-us-produktion-diese-szenarien-gibt-es/100102265.html>)